

113주년

顯道기념



포덕 159(2018)년 12월 1일

< 순 >

1. 개 식
1. 청 수 봉 전
1. 심 고
1. 주문3회병송
1. 경 전 봉 독(권도문)
1. 천덕송 합창(기념송1-3)
1. 기 념 사
1. 포 상
1. 천덕송 합창(포덕행진곡1-3)
1. 심 고
1. 폐 식

※ 사인여천문화행사

1. 문화공연
 - 식전공연(10:30) : 천도교연합합창단
 - 식후공연 : 역사어린이합창단
2. 나눔행사 : 기념품 제공

기 념 사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암성사께서 동학을 천도교로 대고천하한 지 113주년이 되는 현도기념일입니다. 포덕 46년(1905)년 12월 1일 동학을 천도교로 선포함으로써, 수운 대신사와 해월 신사로 전승되어 온 동학의 가르침과 꿈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수운 대신사께서는 신유포덕 이후 나날이 늘어가는 제자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또 바람직한 신앙공동체의 규범을 갖추기 위하여 접주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해월 신사께서는 대신사 순도 이후 초기의 어려운 고비를 극복하고, 강원도를 넘어 충청도 전라도로 확산되어 가는 교인들이 동학의 가르침에 따라 일용행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접주제를 포접제로 확대하였습니다. 또 강화의 가르침을 통해 육임제와 같은 세부 교단 조직을 구상하고 실천하시어 동학의 마당포덕이 일어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암성사께서는 이러한 스승님들의 실천적인 경험과 정신을 계승하여, 동학혁명 이후 어려움에 처한 교단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보국안민 포덕천하의 목적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로 삼고자 천도교로 대고천하를 결행하셨습니다.

공경하는 교인 여러분!

우리는, 의암성사께서 깊은 절망의 늪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현도를 단행함으로써 일거에 어둠을 빛으로 전환시킨 그 기개와 정신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지를 돌아보고, 오늘 천도교가 처한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지혜와 힘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암성사께서 동학을 천도교로 대고천하하신 후 교세는 나날이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천도교의 대고천하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운동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고천하와 3.1운동은 실로 의암성사의 원대한 구상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현도기념 113주년을 맞이하고, 또 3.1운동 100주년을 4개월여 남겨둔 지금 이러한 의암성사의 용단이 재현되는 좋은 소식이 들려와 우리의 기운을 북돋우고 있습니다. 며칠 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5월 11일, 황토현 전승기념일로 정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는 지난 20여 년 동안 천도교단에서 노심초사하고 성지우성 해온 성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천도교중앙총부는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이하면서, 수십 년 동안 지켜오던 3월 21일의 동학혁명기념일 기념식 날짜를 양보하여 가면서까지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과 그리고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의 3자 연대를 이루었고, 올해까지 네 번에 걸쳐 공동기념식을 거행하면서,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마지막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해만 해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한 끝에 그동안 걸림돌이 되어 왔던 각 지역별 이견을 조율함으로써, 마침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이라는 위업을 달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교단이 보국안민의 지상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개했던 대표적인 개혁운동인

동학농민혁명과 내년으로 100주년이 되는 3.1운동의 두 기념일이 실질적으로 천도교단의 노력과 순도 순국하신 선열들의 은덕으로 인해서 국가 기념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본격적인 기념사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우리는 동학농민혁명이 어느 특정 지역이나 날짜에 국한되는 것을 극구 방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인 현상이 갑오년인 1894년 한해에 일어난 사건으로 한정되어 고착화되는 것도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적 위업들은 일찍이 수운대신사께서 동학을 창도하던 그 정신과 가르침의 계승이며, 1890년대 초부터 시작한 교조신원운동, 다시 말해 척왜양창의운동이 갑오년의 동학농민혁명으로 불타올랐던 것이고, 또한 갑진개화혁신운동으로 계승되었으며, 일제강점기의 3·1독립운동으로 정점에 이르러 마침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건국으로 승화되었다는 역사적 흐름을 모든 국민들, 나아가 전 세계인에게 명백히 밝혀 나가야 하는 과업이 지금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4년 전부터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관련단체의 연대를 이룩하였고, 3·1운동 100주년 사업도 국내 7대 종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 속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그 두 사업이 조화를 이루어 보국안민의 시대적 과제인 통일을 위한 양변의 수레바퀴가 되어 우리 국가와 민족사회를 새로운 문명 세계로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천도교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하고, 남과 북이 손을 잡고 한반도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현재의 정세 또한 동학농민혁명에서부터 3·1운동에 이르는,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운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내년 3월 1일, 3·1운동 100주년의 날부터 첫 번째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행사를 치르는 5월 11일 까지를 “보국안민의 동학-천도교 축제 기간”으로 삼아 대대적으로 그 의의를 밝히고, 올바르게 계승하는 전기를 굳건하게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축제의 시간과 공간은 단지 한반

도 남쪽에 한정되지 않고, 남북이 함께 그리고 전 세계의 자유와 평등을 지지하고, 생명과 문명 지향의 지성과 감성으로 충만한 시민들이 함께하는 세계적인 축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에서 3·1운동에 이르는 보국안민 운동을 오롯이 계승하는 참된 의미의 3·1운동 100주년 축제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천도교인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감당하기에 천도교의 현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고비의 이면에 반드시 희망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싹을 틔우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씨앗들을 찾아내고 보살피어 가꾸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안으로 남북 천도교인들이 동귀일체를 기하여 수도연성에 더욱 더 성지우성하며, 밖으로 뜻을 같이하는 남과 북의 전체 민족, 그리고 세계시민들과 연대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

니다. 각수직분의 이치에 따라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천도 교인으로서의 수양을 강화하며 교단의 내실을 더욱 튼튼히 하기로 다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현도기념일의 의의라 할 것입니다.

천도교의 대고천하 이래 지난 113년 동안 우리 교단에는 빛나는 순간도 있었으나, 어려운 고비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쇠운이 지극하면 성운이 온다하신 말씀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정성과 공경과 믿음뿐입니다.

일찍이 의암성사께서 노래하셨습니다.

천지일월이 가슴 속에 드니,
천지가 큰 것이 아니요 내 마음이 큰 것이라.
군자의 말과 행동은 천지를 움직이나니,
천지조화는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니라.

오늘 제113주년 현도기념일을 맞이하여, 의암성사께서 큰 뜻을 품고 천도교를 대고천하 하시던 그 마음을 헤아려 보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날의 운수를 바로 보고 바로 받아 바로 실현해 나가자고 당부 드리면서 현도기념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포덕 159(2018)년 12월 1일

천도교 교령 이 정 희 심고

제13장 기념송

1. 천 - 은 이 망 극 하 여 경 신 사 월 초 오 일 에
 2. 한 - 울 님 하 신 말 씀 개 - 벽 후 오 만 년 에
 3. 나 도 성 공 너 도 득 의 너 희 집 안 운 수 로 다

1. 글 로 어 짜 기 록 하 며 말 로 어 짜 성 언 할 까
 2. 네 가 또 한 침 이 로 다 나 도 또 한 개 벽 이 후
 3. 이 - 말 씀 들 은 후 에 심 - 독 희 자 부 로 다

1. 만 고 없 는 무 극 대 도 여 몽 여 각 득 도 로 다
 2. 노 이 무 공 하 다 가 서 너 를 만 나 성 공 하 니
 3. 무 극 대 도 닦 아 내 니 오 만 년 지 운 수 로 다

후렴

기 장 하 다 기 장 하 다 이 내 운 수 기 장 하 다

종 을 시 고 종 을 시 고 이 내 신 명 종 을 시 고

포덕행진곡

1. 우 리 들 - 은 - 개 벽 - 군 신 성 의 특 사
 2. 오 늘 날 - 은 - 포 덕 - 날 신 심 이 의 특 일 사
 3. 우 리 들 - 은 - 포 덕 - 사 창 생 지 도 자

수 운 선 - 생 - 심 법 - 을 계 승 하 여 서
 천 도 교 - 의 - 큰 큰 - 을 활 승 하 열 고 서
 운 수 있 - 는 - 그 사 - 람 만 나 게 되 면

온 천 하 에 천 덕 을 넓 게 넓 게 퍼 리 라 온 천 하 에 천 덕 을 넓 게 넓 게 퍼 리 라
 살 길 찾 는 창 생 을 길 - 인 도 하 - 자 살 길 찾 는 창 생 을 길 - 인 도 하 - 자
 시 운 시 변 의 논 하 고 삼 - 칠 자 전 - 해 시 운 시 변 의 논 하 고 삼 - 칠 자 전 - 해

포 - 덕 - 은 - 우 리 들 의 천 직 이 로 다
 몸 과 마 - 음 - 다 바 - 쳐 포 직 덕 을 하 자
 당 당 정 - 리 - 밝 히 - 어 포 덕 을 하 자

포 - 덕 - 은 - 우 리 들 의 천 직 이 로 다
 몸 과 마 - 음 - 다 바 - 쳐 포 직 덕 을 하 자
 당 당 정 - 리 - 밝 히 - 어 포 덕 을 하 자

[권 도 문]

「도」란 것은 사람이 한갓 지켜서 사업만 할 뿐 아니라, 진리를 온전히 체득하여 어김이 없게 함이니, 어찌 삼가지 아니하리오.

사람이 세상에 남에 한울 성품으로 말미암지 아니함이 없건마는 능히 그 성품을 거느리는 이가 적고, 누구나 집에서 살지 않는 이가 없건마는 그 집을 잘 다스리는 이가 적으니, 어찌 민망치 아니하리오.

성품을 거느리니 한울이 있고 집을 다스리니 도가 있는지라, 어찌 한울과 도가 멀다하리오. 그러므로 한울은 만물을 낳고 도는 일을 낳나니, 어찌 물(物)과 일이 또한 멀다하리오. 물은 일을 낳고 일은 먹는 것을 낳는지라, 어찌 일과 다만 밥을 또한 멀다하여 어길 바리오. 이러므로 한울이 없으면 생함이 없고, 생함이 없으면 먹는 바 없고, 먹는 바 없으면 일이 없고, 일이 없으면 도가 없을지니라.

이런고로 한울은 화생하는 직분을 지키므로 잠깐도 쉬고 떠나지 못하는 것이라. 만일 한울이 일부 일각이라도 쉬게 되면 화생변화지도가 없을 것이요, 사람이 또한 일용지도를 잠시라도 떠나게 되면 허령창창한 영대가 가난하고 축날 것이라. 이러므로 수고롭고 괴롭고 부지런하고 힘쓰는 도는 금수라도 스스로 지키어 떠나지 않거든 하물며 사람이야 이것을 저버리며 떠날 바리오.

두려워하고 삼가함은 더욱 군자의 절중함이라. 군자는 능히 이 사단을 지키어 천도를 순히 함이니, 어찌 삼가지 아니하리오. 대저 천도가 여기에 지날 바 없는지라, 삼가 지킬진저!

우리 대선생님께서 경신 사월 초오일에 강령지법을 지어 사람으로 하여금 한울님 모심을 알게 함이요, 한울님 모심을 알면 가히 써 한울님 말씀함을 알지라, 어찌 의심할 바 있으리오. 사람이 이것을 다 지키면 수심정기 할 것이요, 만일 지키지 못하면 배천 역리함이라.

한울은 사람에 의지하여 변화가 무궁하고, 사람은 밥에 의지하여 만사를 행하는지라, 어찌 도를 멀리 구하며 능히 근본을 깨달아 지키지 아니하리오.

모름지기 사람마다 신령한 마음이 있어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수족이 있어 능히 동정함으로써 만사를 능히 다하여, 마시고 먹고 입는 바는 도시 다른 바 없건마는 그 근본을 알아 지키는 것이 적으므로, 한울을 등져서 영대가 혼미하고 진실로 한울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지라.

군자는 이것을 능히 알고 순히 지켜서 잠시라도 떠남이 없으므로, 영대가 한울같이 신령하고 그 밝음이 일월같고 그 얇이 귀신같아서,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고 일월로 더불어 그 밝음을 합하고 귀신으로 더불어 그 길흉을 합할지라.

근래에 들으니 혹 입도한 지 수삭이 못되어 발령이 되어 스스로 아는 바 있어 능히 도를 통하였다 하니, 진실로 민망하도다. 이같이 발령이 속히 되는 것은 천하 사람으로 하여금 한울님의 가르침을 알게 함이니라.

이와같이 한울님이 가르치시는 이 운수에, 만일 실상을 알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능히 천지로 더불어 조화를 운용할지라, 삼가 지켜 어기지 말지어다. 만일 우리 선생님의 도가 아니시면 어찌 창생을 건지리오. 이러므로 오직 「수명을랑 내게 비네」하신 것이라.

방금 성령이 현세하여 밝음이 엄숙한지라, 능히 근본을 알아 지키는 데에는 선생의 밝은 도로써 명하여 가르치심이 있어, 홀로 묘연한 사이에 밝음을 알 터이요, 만일 이 이치를 어기는 사람은 만일지공(萬日之功)이 있어도 한울님과 스승님의 가르치심을 받지 못할 터이니, 진실로 애석하도다.

이 몸은 선천이기(先天理氣)로 화생함이요 이 마음은 후천이기(後天理氣)로 밝음이라, 이런고로 세상사람이 한울님을 모시지 아니함이 아니언마는, 후천 운수를 알아 지키지 아니하면 한울이 간섭치 아니하는 바, 한울이 간섭치 아니하면 오직 사람의 중함으로도 놀다가도 죽고, 자다가도 죽고, 섰다가도 죽고, 앉았다가도 죽을지라, 이와 같이 죽음이 무상한 것은 그 간섭치 아니함을 반드시 알지라. 만일 지키는 사람도 이 운수의 근본을 알지 못하면, 설령 정성이 지극할지라도 한울이 간섭치 아니할 터이니 깨닫고 생각하라.

이런고로 「한울님께 복록정해 수명을랑 내게 비네」하신 바라. 복록은 의식이라 의식은 선천 후천이 다른바 없는지라, 밝은 한울님 은혜를 생각하고, 도는 스승님 은혜를 생각할 것이니, 삼가 파혹하여 대도를 순성하라. 은혜를 생각한다 하여도 그 근본을 알아 힘써 지키지 아니하면 어찌 한울님의 감동함이 있으리오. 실상을 알고 지키어 대도 견성하기를 바라노라.